

대치AI.

2027학년도 수능 대비

문학 파이널 26편

2027학년도 수능 연계 문학 — 줄거리 · 관계도 · 〈보기〉 관점

일러두기

이 자료는 EBS 교재와 내용이 다릅니다.

줄거리 · 주제 · 〈보기〉 관점 · 해설 · 요약은 작품의 사건과 인물 관계를 바탕으로 대치AI가 직접 쓴 글입니다. 교재의 문장 · 현대어 풀이 · 문항 선지는 실지 않았습니다.

답은 것

2027학년도 EBS 연계 교재 문학 수록작 가운데 갈래 · 평가원 기출 이력 · 실린 교재를 기준으로 대치AI가 고른 26편 — 고전소설 5 · 현대소설 4 · 고전시가 8 · 현대시 6 · 극 1 · 수필 2

고른 기준

수능 출제를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26편 밖의 작품이나 교재 밖 작품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고른 작품을 한 번 더 정리해 읽는 학습 자료입니다.

교재 안내

작품 제목 옆의 「수특 ○○ ○」 「수완 실전 ○회」는 그 작품이 실린 교재입니다. 수특은 수능특강, 수완은 수능완성을 줄인 말입니다. 교재를 함께 펴 놓고 보세요.

줄거리 번호

소설 · 극의 ①②③은 작품 전체의 사건 순서입니다. 인물관계도의 화살표 위 번호가 이 번호와 같습니다. 화살표 글씨가 노란 바탕이면 교재 지문에 나오는 관계입니다.

〈보기〉 관점

수능에서 〈보기〉로 붙을 수 있는 지문 바깥의 시작입니다. 관점마다 「지문 근거」(그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와 「오답 만들기」를 달았습니다.

페이지

「오답 만들기」의 **페이지** 선지는 대치AI가 그 관점을 비틀어 만든 오답입니다. 아래 X 줄이 틀린 까닭입니다.

작품 본문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현대시 3편(정지용 · 이육사 · 윤동주)과, 공개된 원전으로 확인한 고전시가 6편(면앙정가 · 사친가 · 풍계육가 · 만흥 · 상춘곡 · 만분가)만 본문을 실었습니다. 저본은 맨 뒤 「출처」에 적었습니다. 그 밖의 시 · 수필은 「교재 확인」 줄, 소설 · 극은 「교재 지문 범위」 줄을 보고 교재를 펴세요.

요약

고전시가와 수필은 대목마다 무슨 말인지 「요약」을 달았습니다. 「월곡답가」 「목동가」 「능양시집 서」 「산촌 여정」은 본문 대신 요약을 실었으니 교재 본문과 함께 읽으세요.

평가원 기출

작품 제목 아래 줄은 그 작품이 평가원 시험(수능 · 모의평가)에 나온 해와 대목입니다.

문학 파이널 26편 ·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은이 대치AI · 열람 기간 2026년 11월 19일 수능 국어 시작(오전 8시 40분)까지

이 자료는 EBS 교재와 내용이 다릅니다.

무단 복제 · 배포를 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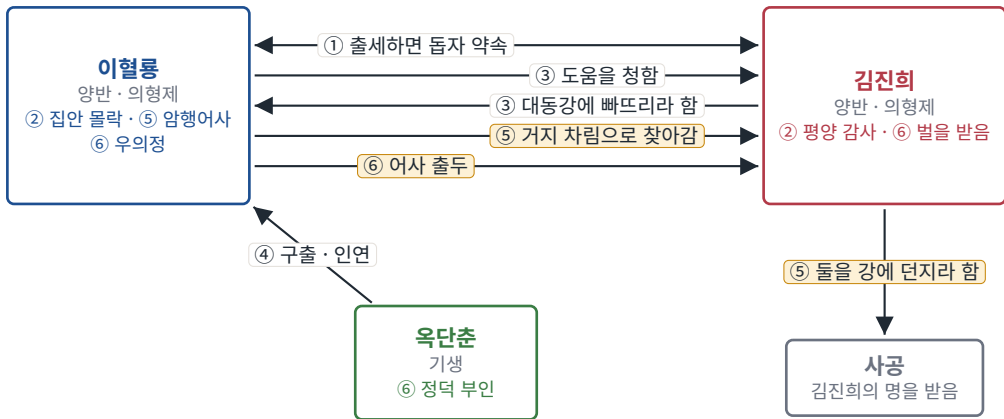
3. 옥단춘전 작자 미상 · 고전소설 · 수록 고전산문 10

평가원 기출 2016학년도 9월 모평 A형 — 대동강 구출 · 장원 급제 · 암행어사 제수 대목

주제 신분을 넘어서 사랑과 신의, 약속을 저버린 벗에 대한 응징

- ① 양반 집안의 **이혈룡**과 **김진희**는 어려서 함께 공부한 의형제로, 누구든 먼저 출세하면 서로 끌어 주자고 약속한다.
- ② 김진희는 과거에 붙어 평양 감사가 된다. 이혈룡은 집안이 기울고 벼슬도 얻지 못한다.
- ③ 이혈룡이 평양으로 찾아가 도움을 구하자, 김진희는 모른 체할 뿐 아니라 사공을 시켜 그를 대동강에 빠뜨리라고 한다.
- ④ 이 광경을 지켜본 기생 **옥단춘**이 이혈룡의 범상치 않음을 알아보고 몰래 살려 내어 인연을 맺는다.
- ⑤ 옥단춘의 뒷바라지로 과거에 붙어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거지 차림으로 김진희 앞에 나타난다. 김진희는 이혈룡과 옥단춘을 함께 죽이려 한다.
- ⑥ 어사 출두로 김진희가 죄의 대가를 치른다. 뒷날 이혈룡은 우의정까지 오르고, 옥단춘은 정덕 부인 작호를 받는다.

인물관계도



□ 주인공·선인 □ 악인·대립 인물 □ 조력자 □ 그 밖의 인물 화살표 위 번호 = 전체 줄거리 단계 **교재 지문 안의 관계**
점선 = 가족·신분 관계

교재 지문 범위 ⑤~⑥. 어사가 된 이혈룡이 신분을 숨긴 채 옥단춘을 찾아온다(옥단춘은 그동안 이혈룡의 가족을 살림으로 도와 왔다). 이어 연광정 잔치에 나타나 김진희를 꾸짖다가 나졸들에게 붙잡힌다. (중략) 대동강가에서 북이 세 번 울리는 동안 죽음을 앞두고 우는 옥단춘을 달랜 뒤, 미리 몰래 대기시켜 둔 역졸들과 함께 어사임을 밝힌다.

〈보기〉 관점

시대 현실 몰락한 양반 이철룡을 두고 같은 양반인 벗은 약속을 저버리고 기생은 끝까지 의리를 지켜, 사람을 잇는 것이 신분이 아니라 신의임을 보여 준다.

지문 근거 결의형제 김진희가 평양 감사가 되자 찾아온 이혈룡을 강에 던지라 함(양반의 배신) ↔ 옥단춘이 이혈룡의 가족을 살림으로 돕고 대동강가에서 함께 죽음 앞에 섬(기생의 의리).

오답 만들기

포인트 김진희가 이혈룡을 죽이려 한 것은 결의형제 사이의 사사로운 원한 때문이므로, 몰락한 양반을 바라보는 당대 기득권층의 시각과는 관련이 없겠군.

X 둘 사이에 원한은 없었고, 출세한 쪽이 몰락한 쪽을 귀찮은 짐으로 보고 내친 것이다.

「**춘향전**」과 **견주기** 「춘향전」과 빠대(양반과 기생의 사랑·여사 출두·권선징악)는 같지만 고난의 중심이 다르다. 「춘향전」에서는 춘향이 옥에 갇혀 고초를 겪고, 이 작품에서는 이혈룡이 벼에게 버림받아 강에 던져진다.

지문 근거 어사가 된 이혈롱이 신분을 숨기고 나타남 → 김진희의 나졸에게 잡혀 강에 던져질 처지
→ 미리 대기시킨 역졸과 함께 어사 출두. 고난과 반전의 중심이 이혈롱이다.

오답 만들기

페이크 「춘향전」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여자 주인공이 겪는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그려 내겠군.

X 강에 던져질 처지에서 어사 출두로 처지를 뒤집는 사람은 옥단춘이 아니라 이혈룡이다.

인물 — 사람을 알아보는 눈 옥단춘은 형편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알아보는 눈(지인지감)으로 짝을 고르고 끝까지 지키다.

지문 근거 강에 던져지던 이혈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구해 냄(줄거리 ④) · 거지 차림으로 돌아온 이혈룡을 다시 맞아들임 · 그사이 그의 가족까지 돌봄.

오답 만들기

페이크 옥단춘이 이혈룡을 반려자로 삼은 것은 그가 장차 출세할 집안의 양반이라는 조건을 미리 따져 보았기 때문이겠군.

X 처음 만났을 때 이혈룡은 집안이 무너지고 목숨까지 잃을 뻔한 처지라 따질 조건이 없었다.

메모